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

사유의 벽을 넘어 본래 마음자리에 이르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태어남을 '낳음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이 시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낡고 무의미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 소녀의 마음에 새겨진 이 질문은 그를 50여 년 학문과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

동서양 철학의 소통을 모색해 온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그 물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특별한 사건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저절로 떠올랐고, 누구나 그런 질문을 갖고 사는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

굳이 계기를 찾는다면 어릴 때 읽은 동화책과 소설책의 문장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엄마의 통곡, 집에서 키우던 개나 병아리와의 이별 등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사춘기 내내 그를 붙잡았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은 그를 철학의 길로 이끌었다.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하며 살지부터 정할 수는 없었다"며 "왜 사는지를 고민해도 되는" 철학과를 택했다. 사학계 원로인 부친 한우근 교수도 "철학이 학문 중의 학문"이라며 딸의 선택을 지지했다.

대학에서 은정희 교수의 불교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이 궁금해하던 물음과 인생의 의미, 우주 존재의 문제에 대한 답이 불교에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무아·공·아뢰야식·일심 등 불교의 핵심 개념을 알게 됐고, 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됐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서양 근대사상을 이해해야 현대사회와 인간 이해의 기반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서양철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사 논문으로 '데카르트의 신과 후설 현상학의 초월적 자아의 비교'를 집필했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칸트 연구에 매진했다.

5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동양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실천에 옮겼다. 계명대 교수로 재직하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등록해 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들었다. 이후 결혼과 육아의 시간 속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에게 학문은 직업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 삶을 돌파하는 방식'이었다.

"불교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저는 그 철학적 깊이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서양에서는 근세에 철학과 신학이 분리되면서 철학은 개념적 사유 차원에 머무르고 종교성·영성을 배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불교 특히 유식불교는 철학적 사유에 종교적 깊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는 이원론적·분별적·개념적 사유의 한계를 이미 간파하고, 그러한 분별을 넘어 중생의 본래 마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자경 교수는 최근 자신의 간화선 수행기를 담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재출간했다.

불교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는 교(敎)와 선(禪),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님을 체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일상에서 〈대념처경〉의 사념처 수행을 실천했고, 이화여대 동료 교수의 권유로 서울 안국선원에서 간화선을 만났다. 당시에는 여러 여건상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했지만, 본격적인 집중수행은 부산 안국선원에서 이뤄졌다. 2009년 12월 22일, 태어난 지 50년이 되던 날이다.

7박8일간의 집중수행은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법문으로 시작됐다. "손가락을 튕겨 보십시오. 무엇이 손가락을 튕기게 하는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하긴 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따라다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답답하고 또 답답했던 물음이 아닌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온몸으로 답답해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우직하게 화두를 붙들었다. 함께 수행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체험을 하고 나아가는데, 화두로 인한 의심(疑心)과 의정(疑情), 의단(疑團) 그리고 화두 타파는 멀게만 보였다. 선방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 공양도 거른 채 명상에 몰두하던 어느 날 "밑동이 쑥 빠져 버리는 느낌"을 받았고, 밤낮없이 정진을 이어가 마침내 수불 스님에게 '해낸 것'을 점검받았다. 이후 해남 미황사에서 수불 스님의 지도로 또 한 번 7박8일 집중수행을 했다.

"집중수행을 통해 불교가 말하는 견성(見性), 즉 본래 마음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유의 한계와 벽에 부딪혀 답답해하다가 그것을 돌파하는 느낌을 얻은 것이지요. 그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 책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입니다."



2024년 6월 29일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에서 '일심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하는 한자경 교수.


2025년 11월 '밝은사람들연구소'의 총서 20권 발간을 기념해 수불 스님(가운데)과 미산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자경 교수(맨 오른쪽) 등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자경 교수는 학술연찬회 좌장을 맡고 있다.

존재에 대한 물음, 철학의 길을 열다
독일서 '칸트철학' 연구 후 불교 공부
'수불선'이 열어 준 '선교 불이'의 길
"AI시대 '마음이란 무엇인가' 물어야"

최근 출간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김영사)는 2013년 출간한 〈화두〉의 개정증보판이다. 절판 이후 주변에서 책의 재출간 여부와 수행 이후의 변화를 묻기도 해 재출간을 결심하게 됐다. 무엇보다 수불 스님의 간화선 지도 방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을 '수불선'이라고 명명하며 집중수행 과정과 특징을 정리해 책에 담았다.

그런데 남들은 평생에 걸쳐 수행해도 이르기 어렵다는 '화두 타파'의 경지를 어떻게 7박8일 만에 이룬다는 것일까?

"교(敎)가 지도로 산을 보는 것이라면 선(禪)은 직접 산을 보는 것입니다. 또 올라갈 산을 직접 보는 것이 자신의 성품과 불성을 확인하는 견성(見性)·돈오(頓悟)이며, 실제로 산을 오르는 것이 점진적 수행인 점수(漸修)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불선의 7박8일 간화선은 돈오를 위한 수행법으로, 이후 점진적 수행 과정과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한 내적 추진력과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한 교수는 지금의 자신을 "산을 한 번 본 정도,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를 확인한 정도"라고 표현했다. 이어 "간화선 수행의 힘은 자기 마음의 크기와 깊이를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물음은 AI(인공지능)시대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도 마음이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철학은 과학의 시녀'이고 '과학은 재력과 권력의 시녀'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주는 답, 과학자나 AI가 제시하는 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유의 틀을 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집중수행 후 '불교를 잘 알리는 것'을 소임으로 삼게 됐다는 한 교수는 앞으로 〈원각경 강해〉, 〈유식이십론 강해〉, 〈성유식론 강해 2·3·4〉 등을 집필하는 한편, 불교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를 동·서양 철학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의 삶은 내가 불교적 가치를 제대로 내면화했는지, 불교적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은퇴 후 일상이 단순하고 편안해지면서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삶, 평화로운 노년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길 위에 서 있었던 그가 도달한 곳은 '본래의 마음자리'였다. AI가 모든 질문에 답하는 시대, 한자경 교수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은 무엇이냐고.

한자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칸트철학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 들어가 유식불교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로 자리를 옮겨 강의하며 연구와 저술 활동을 했다. 지난해 2월 퇴임해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청송학술상, 원효학술상, 반야학술상, 서우철학상,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심층마음의 연구〉(반야학술상), 〈대승기신론 강해〉(불교출판문화상대상),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원효학술상), 〈불교의 무아론〉(청송학술상), 〈칸트와 초월철학〉(서우철학상)을 비롯해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능엄경 강해〉, 〈성유식론 강해〉, 〈불교철학의 전개〉, 〈한국철학의 맥〉, 〈명상의 철학적 기초〉, 〈칸트 철학에의 초대〉,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실체의 연구〉 등이 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백문이 불여일견 !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의 시설 마이크와 본사의 초간단 (디지털) 견본의 마이크를 양손에 잡고 번갈아가며 염불소리 테스트를 해 볼시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의 놀라운 소리 격차를 체험 후 귀 법당 기존시설의 1/2가격으로 시설상담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로 단 한 곳도 고장 전화가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이동식 방생용도 전문판매




현 판매 시설자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